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 될 린비료공장을 마음먹고 크게 건설할데 대한 결심을 내리신 그날로부터 수십차에 걸쳐 공장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설계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며 걸음 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당에서 그처럼 기대하는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총계획과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공장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들끓는 공사현장을 거니시며 하나를 창조하고 건설해도 오직 우리 식으로, 우리 힘에 의지하여라는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있는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본태를 접하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산하기업소들과 순천시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들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들중의 하나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대상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금보장문제를 당에서 시급히 대책할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완강하게 밀어주겠으니 내각과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주인다운 자세와 관점을 바로가지고 힘있게 추진시켜보라고 영예로운 과업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바람이 불어야 기발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라고,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울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욱더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정면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제시된 올해에 제일먼저 돌파구를 열고 승리의 기발을 쫓는 전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부분의 투쟁소식이 전국의 대고조선투쟁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보내주게 되기를 바란다, 하시며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에 의지하여 풀어나가고있는것은 당의 정면돌파사상과 의도에 철저히 부합되는 좋은 시도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자력갱생투쟁에 의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린비료공장의 모든 요소들과 공정을 자동화하고 철저히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일떠세우는것을 지향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조종계통

의 믿음성과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공장의 기술로력을 튼튼히 꾸리며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생산자들을 키우는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의 비준방침대로 린비료공장을 시급히 환원복구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과 린비료공산환원복구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고농도린안비료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수호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안고 장엄한 정면돌파전의 전초병으로서 힘차게 싸워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

강원도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가 일떠세워 준공되었다. 통천군 읍지구의 수만㎡의 부지에 능력이 큰 팽동고, 진공볶로장, 사무청사 등 설비들을 갖춘 수산물생산 및 가공기지가 번듯하게 건설됨으로써 강원도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더욱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수산사업소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통천군 인민들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강원도인민들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끊임없는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건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과학적이며 실리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동해포구에 로동당시대의 《이제어경》을 펼쳐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전진비약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결기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결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작전도, 설계도를 받아안고 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의 진군보폭을 더 크게 내걸은 무한한 격정을 안고 대회장으로 모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사상과 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동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도론에 이어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문은 오늘의 정세는 우리가 각 방면에서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것을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시를 당중앙결정 사용위의 보루로, 사회주의성세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전국의 본보기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시한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총열기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불매의 위력과 양양한 전진도를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맹세를 담은 결의문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러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의 열렬마다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내 조국의 힘찬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길 줄은 맹세가 비껴있었다.

평양시결기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드팀없는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굴함없는 투쟁정신으로 전진비약함으로써 정면돌파전의 첫해, 당창건 75돐이 되는 올해에 세계를 뒤흔드는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높기차게 울려갈 공화국인민의 백철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기상을 안고



전체 인민이 공화국의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기 위하여 총력기하여나섰다.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한 투철한 각오와 의지가 없이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정면돌파전은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갈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다. 공화국이 역사에 그 류례를 찾

## 백두산형의 장군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산을 그대로 닮으신 백두산형의 위인, 백두산장군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는 평창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이었고, 그의 정신과 기질은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그대로요 하시었다.

광란하는 거세찬 눈보라를 휘여잡으며 이 나라 북변에 거언히 서있는 백두산의 모습과도 같이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 서계신다.

온갖 불순물들을 날려보내는 백두의 맹탄 칼바람처럼,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백두의 역센 피부리처럼 그이께서는 평안정적 체재책동과 무모한 적대시정책앞에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 ...

언제인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세계를 붙어치는 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나라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전대미문의 체재속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

## 백두성산이 받들어올린 희세의 위인

아불수 없는 적대세력들의 혹독하고 잔인한 제재봉쇄속에서 사소한 동요나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맞받아나가는 무비의 공격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떨칠수 있는 것은 위대한 백두령장을 령도자로 모신데 그 비결이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할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와 도전, 압살과 봉쇄는 집요하고 악랄하지만 그 모든것을 쳐갈기며 노도쳐 전진한 공화국의 승리도 역시 미증유의 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 조선속도앞에 적대세력이 늘어놓은 총총한 봉쇄망이며 가로지른 도전의 장벽들은 무용지물로 되었다.

말 그대로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혹풍쳐 전진해온 기적과 승리의 행로이다.

력사에는 가장 혹독한 위협속에서 타협을 해결책으로 선택하거나 후퇴를 하고 전진을 주춤하거나 외부의 지원과 도움을 요청한 실례는 많아도 존재유지정도가 아니라 전진과 비약으로 상승일로를 걸어온 그런 국가실체는 없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두의 칼바람은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스한 바람이었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산악처럼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추호의 흔들림없는 배짱과 담력, 넉과 기상을 지니

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지난해 12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데 이어 또다시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기 하고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사적인 선언을 들으며 사람들은 앞이 탁 트이고 승리의 신심과 용기가 북돋아올라 누구나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장애들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로록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것은 바로 가야 할 길의 진두에 백두의 역센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이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맞으신 백두산의 칼바람을 직접 맞고 싶어서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부르며 백두산에 오르고 있으며 백두산을 영원한 마음의 고향,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살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기상으로 난국을 맞받아 정면돌파전으로 나가 뚫고나간다는것은 백두산악과도 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지난 항일의 나날 적들의 봉쇄망을 정면으로 뚫고 조국으로 진군하신 빨찌산대장 김일성주석의 모습 그대로이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그 나날 일제는 항일빨찌산부대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국경일대에 물설 틈없는 봉쇄망을 겹겹이 구축하여놓았다.

해 10월에 이어 12월에 또다시 천리준마의 말발굽소리 높이 무릎치는 생년길을 몸소 앞장에서 헤치시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모습에서 남녘의 애국민중은 불굴의 공격정신과 억척의 의지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실 민족의 령수를 모신 크나큰 공지와 영광을 때부로 깊이 간직하였다.》고 하였다. 예절트의 한 인사는 《세계는 자주적령도의 거장이신

## 빨찌산대오는 오늘도 나아간다

공화국에서 새해의 발걸음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전체인민이 정면돌파전이라는 과감하고 의기양양한 보폭으로 시작되었다.

세계인론들은 《김정은위원장, 난관 정면돌파의지를 과시》, 《위풍당당한 김정은위원장, 정면돌파의지 천명》, 《김정은위원장의 《새로운길》... 등의 제목으로 정면돌파전에 나선 조선의 립장을 전하였다. 정면돌파전의 강행.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하에서 국가의 존엄을 결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압박책동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간다는것은 백두산악과도 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지난 항일의 나날 적들의 봉쇄망을 정면으로 뚫고 조국으로 진군하신 빨찌산대장 김일성주석의 모습 그대로이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그 나날 일제는 항일빨찌산부대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국경일대에 물설 틈없는 봉쇄망을 겹겹이 구축하여놓았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주체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를 경탄속에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백두의 기상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공화국인민들은 백두의 행군길, 애국애족의 행군길을 즐기차게 이어 희망찬 올해의 령정을 빛나는 승리와 기적으로 수놓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빨찌산대오의 진두에서 일체의 철통같은 국경경비망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시어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군을 막기 위한 병력과 물자들을 수송할 목적으로 닦아놓은 개통도 하지 않은 감무경비도로로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시어 우리 겨레에게 크나큰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들을 맞받아 나아가는 항일빨찌산대오의 조국진군은 일체의 백만총검도 막을수 없었고 그 길에서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밝아오야말았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 흐르고 세상은 많이 변하였으나 빨찌산의 투쟁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자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공화국이 잘되고 인민이 잘사는것을 적대세력들이 바라지 않고 전진도상에 계속 많은 예로와 난관을 조성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빨찌산의 숨결로 오늘도 싸우고 백두의 기상으로 승리의 돌파구들을 열어제끼고있다.

고 그이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며 정면돌파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이 오늘의 무성한 빨찌산대오를 이루고있다.

백두의 밀림에서 피어린 격전을 벌릴 때 항일빨찌산은 앉아서 고난을 감수하며 정세가 유리해지기를 기다리거나 그 누가 나라를 찾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조국해방의 대업도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침략세력을 맞받아 나아갔다.

령하 40°C가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항일빨찌산이 얼어죽지 않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도 이겨내게 하였으며 겹겹이 에워싼 적들의 포위망도 맞받아 뚫고 끝끝내 조국해방을 안아오도록 떠밀어준것은 백두의 성스러운 정신이었다.

오늘 백두의 혁명정신은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이 들어온 가장 위력한 정신적무기라고 할수 있다.

백두의 행군길을 맨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온 나라의 각계층 인민들과 청년들이 항일전적지들을 찾고 백두산으로 오르고있다. 백두산에 올라 귀부리를 도려내듯 한 칼바람맛도 느끼고 생년길도 헤치면서 백두에서 시작된 빨찌산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갈 신념의 맹세로 심장의 퍼를 새차게 뚫어가고있다.

공화국인민이 소중한 정신적양식으로 간주하고있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십수백개의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의 무공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오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경제건설에서도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불패의 강군이다.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을 제갈추한 인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면 산도 떠 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지난해 삼지연시와 양덕지구, 중평지구의 전변이 보여주듯이 공화국의 인민들은 령도자의 구상을 최단기간내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내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으로 하여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갔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속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려이어 창출되고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지는것은 령도자를 따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기어이 승리를 안아올 열의에 넘쳐있는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것이다.

항일의 나날 빨찌산들은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으로 하여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으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발톱까지 무장한 적과 싸워이겼다.

오늘 절세위인이 이끄시는 조선의 수백수천만 빨찌산대오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장약되어있고 무진막강한 군력에 가지고있다.

얼마만 순천리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야 기발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라고,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울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앞일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제재와 위협의 역풍이 불어올수록 조선에서는 붉은기가 더욱 거세차게 휘날리고있다.

그 기발을 펴릴 휘날리며 민족의 성산에서 출발한 빨찌산 김대장의 대오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간다. 정면돌파전을 벌리며 승리의 나팔소리 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본시기자 리경철, 고성호

# 조선은 힘차게 나아간다

## 절세위인의 발자취를 따라

한겨울에 백두산을 찾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군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부르며 생의길을 헤쳐가는 그들의 발걸음소리는 드높다.

답사자들은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의 험준준령을 넘어 일제와 싸워이겨 오늘을 행복을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눈보라,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열, 투쟁열이 솟아올라》고 저마다 답사소감을 터놓고있다.

바로 그래서이다.

공화국의 남보로소가 백두의 옛 전구들을 답사하는것은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강 의한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 위한 애국의 일념에서이다.

백두산에 오르면 사람들은 빙설천지에서 항일선열들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게 되고 실천공을 이겨내며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한데 대하여 돌이켜보며 선열들의 그 넋을 이어 기어이 부강조국을 일떠세워야겠다는 자각과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공화국에서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이어져온것이다.

지난 세기 1950년대 중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백두산 지구를 답사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체험하시었다. 답사행군대 오를 이끄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시며 공화국인민들을 백두산과 하나의 운명으 로 억세게 이어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 차례 나 백두산을 찾으시곤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눈보라 사나운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것은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강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열로를 헤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맨 앞장에서 열여놓으신 백두의 행군길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을 모시며 더욱 영광된 승리의 행군길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자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자산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꿰뚫어 이어가는 길이라고 하시었다.

지난해 12월 백두전구를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번 에 시간을 따로 내어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 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채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경쟁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제와 환경, 혁명의 강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

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라고 하시었다.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강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에 백두산을 찾으시어 백두에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길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기상에서 력사의 돌풍을 물리치며 자력번영하는 공화국의 위용과 존엄에 대하여 누구나 가슴후덥게 느끼었다.

지금 공화국의 형편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괴롭압살책동으로 하여 의연 어렵고 난관도 많다.

하지만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를 비롯한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이 힘차게 벌어져 련이어 승전포성이 울리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대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진척되고있다.

고난과 시련이 천경만경 가로놓여도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만 있으면 공화국은 자기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수 있고 자기기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고

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업무로 보나 전략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백두의 전구에서 체득한 선열들의 넋과 기상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가져오기 위하여 온 나라의 각계층 인민들이 백두산에로의 겨울행군길에 오르고있는것이다.

은 나라 인민들이 걷는 백두산에로의 행군길, 이 성스러운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제힘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와 살로 새기자》, 《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이것이 오늘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 들을수 있는 소리이다.

공화국의 전 력사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전진하고 승리를 떨쳐온 나날이었고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뿜어내는 숨결도 백두의 역전 기상이다.

공화국인민들이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왜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달려왔고 밝아온 이해에도 변함없이 그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고있는것인가.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것은 사상정신이다. 정신이 강하면 육체적인 한계에도 놀라운 힘이 생기며 정신력의 강자가 진짜 강자이다.

조선은 이 행성에서 정신이 제일 강한 나라로 되게 한 그 밑뿌리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

(서정시)

###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주 옥 양

백두산!  
내 토끼무늬가방 메던 시절  
크레용으로 너를 그리던 그날엔  
어린 마음의 나래처럼  
내우에 울랐다

붉은넥타이시절  
아버지가 가져온 백두산의 돌을 안고  
잠 못들던 그밤엔  
내 꿈속에서 내우에 울렀고

답사갔던 작업복의 그 동무  
백두산현시의 굴밭을 줄 뻔  
내 그 시를 읊으며  
내우에 울랐다

아, 산갈이 쌓아온 그리움  
혁명의 성지에 한껏 쏟으며  
내 지금  
그리도 소원이던 백두산에 오르나니

터치노라, 백두산아  
충충 하얀 명주필인듯  
키를 넘는 흰눈에 뺨을 비비며  
수령님 스무성상 찍으신 자욱에  
이내 작은 심장 한껏 터치노라

터치노라, 터치노라  
한줌 고목의 넋풀이끼에도  
그이 바쳐오신 로고의 반세기가 새겨져  
있고

한송이 웃는 눈속의 민병초에도  
그이께서 가꾸오신 내 조국의 모습이 떠올라

이같은 이빨마다  
숨쉬는 기념비런가  
한가닥 저 바람결조차  
크나한 숨결이 되어  
내 심장에 홀르드는가

리없이 푸르른 너의 천지물은  
바치는 삶에 진함없을 나의 피!  
치웃아 아아한 너의 일만산악은  
죽어서도 변치 않을 나의 신념!

오 백두산 백두산아  
내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만일 한결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폼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 자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1983년 창작)

는 견결한 투쟁정신, 국가적후방이나 정구군의 지원도 없이 유격전의 방식으로 싸워 일제의 백만대군을 무찌른 항일전쟁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정신이다. 항일혁명선열들은 천고의

모른다. 그 누가 자기의 주관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려도 용서하지 않으며 평화는 귀중해도 결코 굴절은 하지 않는다고 노래로, 심장으로 웨치는 사람들이 조선의 인민이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기적의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적대세력들의 갖은 도발에도 단호하게 맞설수 있는것이다.

항일투사들이 맨주먹으로 연길독란을 만들었던 그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면 불가능한것도 없고 절망 못할 요새도 없기에 제힘으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14년만에 이룩하고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짧은 기간에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이 다르고 래일이 다른 창조와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있는 공화국이다.

지난 2019년에도 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최악의 제재속에서도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자랑스럽게 일떠섰고 대규모

중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가 완공되어 세상을 놀래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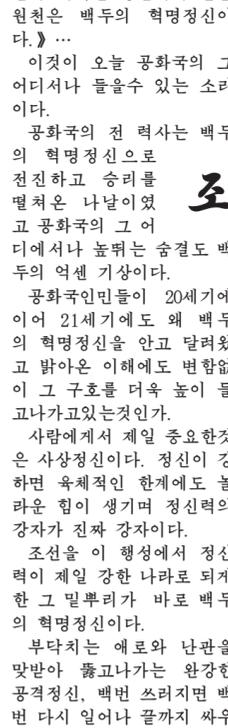
백두의 혁명정신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수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는 위대한 힘을 안겨준다.

공화국의 전 력사에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재를 받지 않은 나날은 하루도 없었고 그 장기간의 모진 제재도 공화국은 끄떡없이 이겨냈다. 그 무슨 《붕괴》설이 행성에 어지럽게 나뉘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은 굶어들거나 뒤돌아선것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맞받아 헤쳐고 마침내는 승리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적대세력들의 장기적인 제재소동을 새해 정초부터 정면돌파전의 열풍으로 훑날려버리며 더욱 기세차게 용진하고 비약하는 공화국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래치는 공화국을 당할자가 이 행성에 없고 최후의 승자가 된 조선은 세계는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새해벽두부터 풍기는 전쟁화약내

새해벽두부터 남조선군 부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새해 첫날 명절분위기를 깨뜨리며 《새해의 안보상황은 결코 록록치 않다》,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철동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업을 토하였다.

합동참모본부의 장이라는 자도 《북이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수 있는 상황이다》,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적도발시 단

호화군 주저함이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폭언하였다. 이에 뒤질새라 공군참모총장은 3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두번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투기를 타고 지난 조선전쟁시기 가장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락 동강전선일대상공에서의 지휘비행을 벌려놓으며 풍수음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해말부터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은 조선동해상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시습을 진행할수 있는 수역을 새로 설정할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이번 수역설정으로 《북극성-3》형과 같은 북의 각종 미사일들에 대비한

요격훈련을 자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해상 대공중, 해상 대 지상, 지상 대 해상은 물론 지상 대 공중미사일시습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격기를 부리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극도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려는 것이 바로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의 의도이다.

남조선에서 새해벽두부터 터져나오는 화약내질은 폭언들과 군사적행동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과 군사적도발기가 은폐된 형태에서 벗어나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 로골적인 동족대결선언이다.

상전의 반공화국군사적압박공세에 추종하여 도발과 북침전쟁준변에만 매여달리는것이 바로 남조선군부호전장들의 의도이다.

지난 한해동안 미국에 추종하여 명명만 바꾼 끊임없는 북침전쟁준변과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전쟁장비 도입행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온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위협》, 《도발》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단호하고 주저없는 대응》, 《현장에서 승리》를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집단은 개가 짖어대는 격이다.

심기가 불안하면 허세와 객기로 마음을 달랠것이 아니라 얻어맞을것을 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도적 제발 저린 소리

최근 남조선의 그 무슨 《정책》연구기관들과 보수 언론들이 생동같이 《3월위협》이라는것을 내뿜으면서 《전쟁위기가 조성될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인 유휴화제지를 발신》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발신》하여 《3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는 음흉한 모략수동, 쫓겨온자들이 댕겨하여 내지르는 비명여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북이 3월경까지

긴장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것》, 《2월말, 3월초에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면 규모가 축소되든, 명칭이 바뀌든 북은 그들 명분으로 새로운 전략무기시험을 강행할것》이라고 쉼대대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현시기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위기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규명하게 보여주고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3월위기》를 내뿜을수록 도적이 제발 저러한다는 소리밖에 들을것이 없다.

신성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새해벽두부터 《보수대통합》을 주도해버리고 각 보수정당에 추파를 던지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바른미래당》의 탈당과 《개혁신보》를 표방하는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는 등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들사이의 세력권다툼으로 모순과 갈등이 표면화되고있다고 한다.

《자한당》 패거리들은 《이번 총선에서 보수가 분렬되는 경우 패할수 밖에 없다》고 아무재기를 치며 매일같이 《보수대통합》을 쉼대대고있다.

얼마전에도 황교안은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선거전에 《야권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모든 자유민주세력과 손을 맞잡겠다》고 회피했

이것은 사실상 《범보수통합》의 간판밑에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자한

당》의 알뜰한 술수이다. 자기들을 한곳 저들의 재집권야망실현을 위한 먹이감으로 삼으려는 《자한당》의 속심을 모르지 않기에 다른 보수세력들은 여기에 반발해나서고있다.

《새로운보수당》은 《자

야육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즉시 《자한당》내 친박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자한당》의 친박계는 낡은 집과 새 집을 표방한 《새로운보수당》의 제안은

배신자로 락인한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있을수 없다고 재편에서 콘소리를 치고있다.

결국 남조선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을 저들의 권력야욕실현의 기회로 삼으려던 《자한당》의 통합놀음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보수세력들의 치열한 싸움일뿐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이런 속에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안철수가 정계부기를 선언함으로써 보수층의 분렬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남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수세력내부의 주도권싸움과 갈등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득권》유지에만 환상이 된 정치패륜자들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벌리는 추악한 개싸움질로서 력사의 무덤을 향해 질주하는 반역무리의 가련한 불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

본사기자 주광일

## 권력욕에 환장한자들의 추악한 싸움

《자한당》의 통합요구에 《탄핵》의 강을 건지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이른바 《보수재건 3원칙》이라는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자한당》이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원세끼를 요고

더우기 《새로운보수당》은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공천》권을 요구해서서도 오허리 《자한당》의 속을 파먹을

결국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꾸려는것이다. 청계천이 들어온다고 한강의 이름을 바꾸느냐》며 류승민의 《새 집》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일축하고있다.

국유광매무리인 《우리공화당》도 류승민의 《보수재건 3원칙》은 《이미 우파에서 배척된 안》이라고 처내 깔리며 《새로운보수당》패들과 선을 긋고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박근혜에게 찬성한 자기들을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거세게 벌여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이익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면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 죄악을 덧쌓은것으로 하여 민심의 규탄배격과 더불어 오명비탄을 뒤집어쓰지 않았던 안되었다.

《우리민족끼리》 편집국은 역적패당을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워 단호히 징벌하라는 온 겨레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담아 《자유한국당》의 죄악을 찬 지난 1년간 행적을 각종 오명들을 통해 날같이 까발린다.

### 동족대결당

동족대결로 더러운 진명을 부지해가는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벽두부터 사사건건 우리를 절고들며 대결야당을 끌어내어 동족대결당으로서의 본색을 날같이 드러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며 발표된 력사적인 신년사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진폭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때 유독 《자한당》것들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립장》, 《북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명색뿐》, 《《한미동맹》 흔들고 《남남갈등》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대결야당으로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초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라는데서 우리를 《주적》으로 표기한 문구가 삭제되자 《적을 삭제한다고 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고 고야대면서 대결광기를 부렸으며 온 겨레가 력사적인 평양공동선언 발표 1천을 맞으며 북남선인들의 철학을 리행해 요구하고 있을 때에도 동족대결무리들만은 《북에 《한미동맹》의 혼란증단, 미사일, 방사포시

##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한당》의 1년행적

협성과라는 선물만 안겨주었다.》고 떠들어대면서 북남선언들의 폐기를 미친개처럼 꾸러냈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긴장 완화흐름을 과거대결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꾀한 《자한당》것들은 지난해에도 케케묵은 《안보장사》를 위기극복의 《묘안》으로 여기면서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건너가 주재대사로 《속도조절론》과 《서부론》을 내놓고 《자한당》은 파쇼독재후에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지난해 2월 《유신》독재자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한당》것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 광주를 피다마에 잠고있던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끌어올리고 항쟁용사들과 희생자유가족들을 《포도》, 《피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거침없이 내뱉다 못해 이에 항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국회》밖으로 내쫓는 망동까지 부렸다.

이해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이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들고일어났지만 《자한당》것들은 범죄자들에게 《숨방망이척별》을 함으로써 저들이 다음아닌 전두환군사파쇼당당의 후예임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호침몰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넘겨줘보려고 발광하였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찬동을 받고있는 북남선언들을 폐기하라고 생떼를 쓰며 평화변명과 통일어로 향한 거센 찬 흐름을 가로막아 감히 들어볼수 없었던 《북정권교체》와 《북붕괴》와 같은 악담을 쉼치면서 최후발악하는 《자한당》것들이야말로 불구대천의 반역무리들이다.

### 독재후예당

독주의 뿌리에서는 독초가 돌아나기마련이라고 지난해에도 《자한당》은 파쇼독재후에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지난해 4월 《자한당》지도부자들은 《박근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너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여론을 기만하려 하였으며 집권기간 예비의 《명예회복》을 떠들어대며 《유신》파쇼독재를 부활

시키고 민생을 도란에 빠뜨려 남조선을 사상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조별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

당대표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은 박정희의 고향에 기린기신 찾아가 《박정희(대통령) 님의 업적을 폄해하는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황실수실화담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끓어죽던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지도자가 박정희(대통령)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력사를 부정하는것》이라는 황당할 깨물어 《유신》독재시대를 재현해보려고 발악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낸 독재자의 후예들은 지난해 10월 박정희의 무덤앞에 몰려가서는 《박근 업적을 남겼다》, 《박근혜는 《마녀사냥》의 희생물이다》, 《박근혜를 우리가 구하겠》고 독을 쓰면서 보수 멀거지들을 규합하는데 급급하였다.

《보수대통합》으로 《유신》독재시대를 부활시켜보려는 타산밑에 당대표 황교안은 보수야당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 《범자유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좌파정권》의 질주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정치적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황실수실화담을 권력을 휘두르며 안하무인적으로 제 마음대로 활개치던 옛 시대를 되살려보려고 《자한당》것들은 보수부활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공직자범퇴사처설치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저지를 위해 세상웃기는 회비국들을

련이 버려놓으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나온다고 《유신》독재의 향수에 폭 쫓기 보수부활을 향해 날뛰는 《자한당》것들은 쇠사슬로 묶어 풀는 기름가마에 처넣어도 《유신》독재 부활만을 꿈꾸는 지독한 후예들이다.

### 부정부패당

무위도식자는 일하는자가 가난한 덕에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온갖 부정부패로 살게 해준 권력을 유지해 온것이 다름아닌 《자한당》이다.

지난해에도 적폐의 본당인 《자한당》의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이 터져나와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도적》은 두둑도 도적이요 줄개도 도적이다》는 속담 그대로 《자한당》대표 황교안부부가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번번하기가 양푼 밀구멍같은 황교안은 지난해 6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서 한 강연에서 자기 아이가 부족한 실력으로도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범죄자랑》을 늘어놓았다.

전 원내대표 라경원 역시 자기 딸을 성신여자대학교에 특혜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남조선인터넷들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마침내 울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큰길에 나선 격으로 라경원은 오허리 자기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해 폭로한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과립치하게 늘어났는 가 하면 9월에는 《자한당》소속 의원 정제현의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울시 마포구 도로를 돌아치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저지르고도 아버지의 권력을 등고 《세계지회의원들》 등으로 늘어대어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자한당》의 우두머리들부터가 부정부패의 왕초들이다니 줄개들이리완영과 리우현을 비롯한 10명의 《자한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6월과 7월, 10월, 11월에 《국정원》특수활동비와 불법정치자금횡령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현재까지도 《자한당》의 각 의원들은 수많은 부정부패의혹을 받고있다.

《자한당》이 이런 범죄자들의 집합체이기에 《고위공직자범퇴사처》 설치문제를 놓고 《국회》, 《관두동회》, 《식물국회》로만 들며 《장의투쟁》까지 벌리는 망동을 부러댄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돈으로 권력을 흔자는 반드시 부패로 망하는것처럼 부정부패로 세상에 나와 수심내던 《부패》를 마구잡이로 부패로 멸망의 길을 가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호색동물당

호색한은 백편 받은 모욕에도 회심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민심의 규탄과 저주를 받아왔어도 역시 《자한당》은 오래전부터 《성수리당》으로 락인찍힌 그 반통을 이어받아 오늘날도 호색정당으로서의 명성을 유감없이 떨치고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사는 어느 한 관광안내자가 미국 방송에 출연하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최교일이 2016년 9월 미국출장시 《스트립 바》(라제춤을 봉사하는 술집)에 출입하여 라제춤을 추는 여성들에게 립까지 주어가며 놀음에 정신을 쏟아부은 일들을 날날이 폭로하는 바람에 《자한당》은 갈데 갈지는 《성추행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드러냈다.

력사에 락인된 《자한당》의 성적비화들을 폄자면 끝이 없지만 지난해 색마들의 서식장인 《자한당》의 유치하고 저질러온 행동은 보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비빔밥》

그 시궁창에 서식한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자란것인지 《바른미래》, 《우리공화》, 《새로운보수》라는 이름을 단 나물들에서도 같은 독성분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나물을 넣고 닭알을 올린 비빔밥은 섬유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함량이 적어 사람에게는 아주 리상적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독물질이 와글와글하게 저러것은 냉세만 말아도 구역질이 날 겁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만들겠다고 하는걸 보면 《보수비빔밥》을 만든다는 《로리사》들이 정심이상에 걸렸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겠지요.

민생고에 지친 남조선인민들이 굶어죽고 자살할 때 팔

방에 모여앉아 상어지느러미로리만 쳐먹던자들, 슬픔에 잠긴 《세월》호의 유가족들앞에서 음식을 처먹으며 야로하던자들이 비빔밥이 어떤것인지 알러이 없는노릇이지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비빔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영양식품으로 되고있는

가까이 《자유한국》이든, 《바른미래》든, 《우리공화》든, 《새로운보수》든 담을레면 담으라고 합니다. 풍망 담은 다음 그릇대로 훌 지정밖으로 내던지면 그만일테니까요.

김정혁



### 자력갱생을 변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 시련의 나날에 울린 토지정리의 포성

공화국의 력사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토지정리라는 거대한 전변을 안아온 나날도 있었다.

저 멀리 동해기슭 강원평으로부터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시의 그 어느 농장밭에 가보아도 토지정리로 일신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대지개 뻗어나간 물길들과 포진도로를, 과일동산들, 그 기슭에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은정마을》, 《은덕마을》, 《감나무마을》, 《제대군인마을》... 여기에는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맡아주시고 현명한 령도로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다.

주체87(1998)년 5월 어느 날 새벽,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도군 대백리의 나지막한 등관에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도로주변의 동성이를 따라 총총으로 들

어앉은 자름자름한 논배미들을 이속토록 바라보시었다. 좁고 길다란 밭에 저미줄 같은 논밭두렁이 열기설기 고여져있었다.

옛날에 논밭을 갈던 소를 돌려세울 자리가 없어 들어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며 어떤 농군이 잃어버린 자기 논한배미를 찾느라고 하루종일 헤매다가 저녁에야 벗어놓은 것일에서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오는 포진들이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토지정리를 하라고, 강원도토지정리는 자신께서 이미 생각해온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토지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여서 있는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고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최전선일대에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어있었다.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밀고 나갈단 말인가.

일군들의 눈길을 일일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어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하면 농사를 기계로 지어보려는 농민들의 세기적꿈을 풀어주고 도안의 식량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었다.

그것은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일신시키기 위한 천지개벽의 포성,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불러오는 장엄한 포성이었다.

5월의 그 새벽과 더불어 시작된 천지개벽의 새 아침은 잠자던 온 강원땅을 깨우며 진감하였다. 인민군인들과 각 도, 시, 군(구역) 돌격대원들이 떨쳐나섰고 대기화공단이 강원평으로 향하였다.

1998년 10월부터 강원평에 토지정리의 첫 삽을 박은 인

민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들며 4월까지 울망출망하던 수만정보의 폐기논밭들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정리한 땅에서 17만 2000여개의 논밭배미와 5449km의 논두렁이 없어지고 1700여정보의 새땅이 더 생겨나는 희망한 현실이 펼쳐졌다.

강원평에서 울린 토지정리의 포성은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와 평안시에 로 메아리쳐 수십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고 개천시대 각리로부터 태성호에 이르는 근 400리구간에 자연호름식물계가 뻗어나가 10만정보의 논밭에 생명수 흘러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대규모의 규격포전으로 천지개벽된 벌마다 기계화의 동을 높이 울리는 자랑스러운 현실.

바로 이날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도군의 이름 없던 폐기논밭머리에 대규모토지정리를 선포하시었고 이날을 위해 평안북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

던 그날에도 기계로 농사를 지으려는것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이었고, 토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절절히 교시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던 그날에도 늙은이들이 토지를 정리한것이 너무 좋아 아침저녁으로 나와보고야 잠을 잔다는데 왜 그러지 않겠는가, 이제는 옛날 지주가 와서 자기 땅을 찾자고 하여도 찾을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순바닥만 한 폐기논밭에 명줄을 걸고 어깨에 파동이 들도록 개미떼를 끌며 지주의 소작농사를 짓고도 낱알이 없어 귀한 자식을 굶겨죽여야 했던 사람들, 온 한해동안 마발이 닳도록 농사를 지어 마련한 옥백미를 모두 일제들들에게 빼앗기고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던 이 나라 사람들이었다.

수수천년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이 땅 곳곳에 무수히 남아있던 울망출망한 폐기논밭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대규모의 규격포전으로 펼쳐지고 그전날 물이 없어 거꾸로잔듯처럼 갈라지던 땅에 생명수 흘러넘치였다.

천지개벽의 이 놀라운 전변은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오늘날에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깃든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아름다우며 풍요한 나라로 꾸려나갈 애국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것이였다.

## 희열과 낙관에 넘쳐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60정춘, 90한갑이라는 말 그대로 새해에 아흔살을 맞게 된다는 리경구선생은 10년이상이나 젊어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갖가지 보약들도 보내주시고 추우면 추운세라 더우

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왜 늙겠는가, 머리에 흰서리는 내렸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서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가 절로 나온다면 환하게 웃었다.

자력부강, 자력변영의 진군길에서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는 인민의 환희가 차넘치는 새해에서 어딜 가나 희열과 광만, 신심과 락관에 넘친 노패소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전 우리는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겨 복받은 삶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는 비전향장기수 리경구선생을 만났다.

평천구역의 아늑하고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선생의 집을 찾으니 온 가족이 모여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60정춘, 90한갑이라는 말 그대로 새해에 아흔살을 맞게 된다는 리경구선생은 10년이상이나 젊어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갖가지 보약들도 보내주시고 추우면 추운세라 더우

면 더울세라 다스린 정을 기울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자기 하나만이 아닌 비전향장기수들모두의 값높은 삶과 행복,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설날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의 영상을 뵈오니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앞길에 시련과 난관은 많아도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자력변영의 불변침로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이룩할 건담은 반드시 올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르는 《희망넘긴 나의 조국아》의 노래를 애가로 자기의 목소리를 합치였다.

...

은혜로운 햇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게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변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

본사기자 김진혁



토지정리로 천지개벽된 어러리밭

무릇 새해를 가리켜 꿈이고 희망이며 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2020년의 새해는 부푸는 꿈과 희망, 소원과 기대만으로 밝아오지 않았다.

절어갈 앞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은뎌를 씌어안는 혁명열, 투쟁열이 누구나의 가슴을 새차게 끓여주며 2020년의 뜻깊은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의 첫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행성에 울려 퍼졌다.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나날 백철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웠던 불멸의 대강은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역세게 틀어잡았다.

누구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소식이 실린 신문들 자자구구 읽으며, TV와 방송으로 전해지는 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격동된 심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정면돌파 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은 위대한 우리 조국기 력사의 광풍을 거역해 맞받아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어떻게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가를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선언한 전투적기치였다.》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막 솟아나온다. 정면돌파전, 이것이 야말로 우리 인민의 배짱과 기질이 꼭 맞는 공화국방식, 투쟁방식이다.》

《엄혹한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도 두렵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따라 전인민적인

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과학과 교육,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이 곁싸이는 난관을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정면돌파하여 자력부강, 자력변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금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으로 막아나서고있다.

하지만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아무리 집요하고 길길은 험난하여도 역경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이 나라 인민의 사기는 총천하고 승리의 신심은 드높다.

신심은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서 관건으로 된다. 아무리 고난이 세차도 신심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이 고난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의 신심을 백배 해주고있는것이냐.

총천되는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마음속에 억여지는 믿음,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이다.

투쟁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해도 승리의 신심이 넘칠 때 인민은 강해지고 용감해지는것이냐.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공화국력사에서 가장 준엄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다.

적대세력들의 최후발악적인 봉쇄와 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은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만방에 빛을 뿌리는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생각할 때에도, 시련속에서도 낱알이 추겨치는 문명의 창모물들을 집할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길에 승리

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의 신념을 가다듬는 이 나라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또다시 장구하고 험난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심장으로 따라섰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억척불변의 신념,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도 나아가 길로써 밝혀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우리 르며 누구나 《우리 별세 하였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들먹이였다.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확인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인민은 크나큰 힘과 백배하는 용기를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의 마음속에 승리의 기치가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신다. 심혈과 사색을 기울여 언제나 백철불굴하는 길을 밝히시고 열화같은 견인력으로 온 나라 인민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가야 할 앞길에는 보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언제나 백승의 진로만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승리는 확정적이다.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여 가는 새해의 장엄한 대진군은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가장 보람차고 영광넘친 승리의 길, 변영의 길이다.

하기에 승리의 작전도마양, 진격의 화양포마양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천출원인의 령도따라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변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화양포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인민의 백철불굴의 신념과 의지는 반드시 력사의 새 승리를 창조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과학기술영역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결의에 넘쳐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강혁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과학기술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심정이 남다르다고 본다.

강혁민: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사상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행사업업을 국가앞에 책임진 우리 위원회일군들과 정부원들이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어떤 각오와 결심,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립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우리는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에 맞게 과학기술부문에

서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기 위한 올해의 투쟁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기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강혁민: 주요공급부문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가 큰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철과 황철 등 금속공장에서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탄소하나 화학공업장설을 다그치고 신의주 화학성유공장의 현대화와 야금, 기초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산소농

화막, 이온교환막의 연구도입 등 현실적의가 큰 여러건의 과제에 힘을 넣게 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각지의 전력생산단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특히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함께 자연에너지의 개발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 과학기술로 돌파구를 열겠다



김혁민: 주요공급부문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철도의 고속도화, 중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실천적의가 큰 철도설계,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비롯한 철도운수부문의 과제들도 있다.

농업과학부문에서는 간직기능사에 필요한 영기견달성이 강한 새 품종의 논벼를 육성하고 그 재배기술을 확립하는것을 중요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게 된다.

우리는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였다.

전리미재강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리성철

과학기술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양양된 열의가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연구력량 편성과 지휘를 맡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날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개척자,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선에서부터 정면돌파전의 돌파구가 열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도전을 맞받아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면돌파사상을 심장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나갔다.

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 창조형의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진장 량시호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도전을 맞받아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면돌파사상을 심장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나갔다.

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 창조형의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진장 량시호

## 더 높은 강철증산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급부문들에서부터 곁싸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양양을

## 과학농사에 힘을 넣어

중자와 농사방법을 받아들였다.

또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대중의 생산의욕을 높여나갔다.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더 높은 다수확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갔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분조장 최옥분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1)

세계력기계의 최강자 김정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 2중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인 김정심선수는 지난해에 진행된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세계력기계를 놀래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자 76kg급경기에 출전한 그녀는 끌어올리기 첫번째 들어올리고 두번째 들기에서 119kg을, 세번째 들기에서 123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추켜올리기에서도 155kg을 들어올림으로써 그녀는 종합 278kg이라는 세계신기록을 또다시 세웠다. 런던에서 열린 세계신기록을 세운 김정심선수의 경기성과는 세계력기계를 뒤쫓는 사변이었다.

김정심선수는 지난해 9월에 진행된 2019년 국제력기러닝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76kg급경기에서도 순간체력과 정확한 중심잡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1월은 한해중에 제일 추운 달로서 24절기의 마지막절기인 소한과 대한이 이 시기에 든다.

소한은 해마다 양력으로 1월 6일이나 7일에 드는데, 민간에서는 이때부터 겨울 추위가 시작되어 가장 추운 때인 대한에 이른다.

소한이 지난날 사람들은 설명절을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하기 위하여 집안팎을 알뜰하게 손질하였으며 여성들은 설빔과 음식감들을 마련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동안 장국이나 전골을 비롯한 더운 음식을 즐겨 해먹곤 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밤우에 푹두지짐과 버섯볶음을 얹고 무친 닭고기를 높고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해준 고마운 조국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끝까지 경기를 진행하여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후 김정심선수는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 75kg급 력기경기에서 빠른 순간체력과 받아안기, 추기의 력결동작을 탄탄히 수행함으로써 종합 성적에서 2위를 한 선수에 비해 16kg이나 더 들어올려 경력을 자아냈다.

그는 2018년 제18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력기경기에서 출전하여 2등한 선수보다 26kg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렸으며 2018년 국제력기러닝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끌어올리기종목에서도 우승하여 력기장으로서의 실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국제경기마다에서 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려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자랑스럽게 펼친 김정심선수는 새해에 더 높은 경기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리명수폭포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있는 대동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처음 세워진 후 고려 초기인 947년과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392년에 고쳐 세웠다.

평양의 자랑-대동문

롬케 화강석을 다듬어 쌓아 올린 축대와 그우로 세운 2층다락으로 꾸러졌다. 지붕은 합각식이며 지붕받침은 3포식으로 되어있다. 기둥, 도리, 서까래 등 부재들은 모두 굵직굵직하며 부재의 조각적 처리도 잘되어 성분루로서 가져야 할 장중한 맛을 잘 나타내고 있다.

1층의 가운데 한칸에는 3층 높이로 널마루를 깔았는데 이것은 다른 성분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대동문은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로 화려한 금단청이 입혀져 문루를 더 한층 호화롭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대동문은 대동강, 련광정, 종각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것하고 안정감이 있는 길모양, 장쾌한 지붕의 부드러운 몸매와 깊숙한 처마, 비교적 키높은 배부른 기둥과 간결한 지붕받침을 비롯한 믿음직한 구조적 요소들, 통선형으로 다듬은 도리의 부드러운 곡선, 섬

세하고도 화려한 단청장식, 목직한 축대에 비한 경쾌하면서도 장중하고 우아한 다락 등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대동문에는 《음호루》라는 띠 이름도 있는데 이것은 문루에서 손을 아래로 드리우면 대동강의 맑은 물을 떠올릴수 있게 대동문이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면서 강기슭에 솟아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대동문은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곳에 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평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성문이었다.

대동문의 건너편을 《선교》라고 부르던 것은 이곳에 배다리가 놓여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동문의 높이는 19m이며 성분다락의 앞면(15.91m)과 옆면(10.34m)은 각각 3칸으로 되어있다.

성문은 무지개모양의 나드는데 내고 경교



혈압을 정상화하자면 두 주일동안 검은 마가목열매 25g을 만든 즙을 마시거나 매일 그 열매를 10알씩 먹어야 한다.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마늘즙을 사용할수 있다.

잘게 썬 마늘 2톨에 술 250ml를 붓고 12일동안 놓아둔다.

식사하기 15분전에 20방울씩 하루 3번 먹는다.

맛있는 감으로도 혈압을 낮출수 있다.

방금 만든 감즙을 매일 세고뿌씩 마시면 된다.

또한 들쭉우린 액을 쓸수도 있다.

말린 들쭉 4술에 끓인 물 한고뿌를 붓고 8시간 동안 놓아둔다.

매일 한고뿌씩 마신다.

고혈압증상이 심할 때에는 식초에 적신 붕대패 박을 발뒤축에 댈다.

혈압이 내려가면 인차 대조박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혈압이 더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혈압을 떨리기 위한 구급대책이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그 효과는 각이하다.

그러나 좋은 치료효과를 보자면 반드시 일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첫째로, 몸무게가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 몸무게 운동부터 해야 한다.

둘째로, 알콜음료와 차, 커피 그리고 담배를 완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육체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30분동안 신선한 공기속에서 운동을 하면 상태가 훨씬 좋아질것이다.

넷째로, 소금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을 최소한도로 줄인다.

그리고 항시적으로 치료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제때에 약을 사용해야 한다.

본사기자

사화

결의삼형제(2)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그 말에 박희준도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었다.

《그건 내가 언제인가는 한번 말하러던 바로 그 말일세. 우리 세사람이 힘을 합쳐 서로 도와나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게 무엇이 있겠나.》

《삼인협력하여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며 나도 찬성하네.》

리종승 역시 생수를 들었다. 정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벼의 손을 잡았다.

《나는 자네들을 위해 한 몸 바친다면 그이상 기꺼울 것이 없겠네. 우리 백년도록 변신없는 의리로 살아가세!》

그러하여 세사람은 마침내 향을 피우고 업숙히 의형제를 맺었다.

열여섯나는 박희준이 만행이 되고 열다섯나는 정희수는 리종승보다 생일이 앞섰으므로 둘째로, 리종승은 막내가 되었다.

얼마후 학업을 마치게 되니 정희수와 리종승은 각각 라향으로 떠나가고 박희준은 그냥 고향집에 눌러앉았다.

덧없는 세월은 물결처럼 흘러갔다. 성례를 이룬 박희준에게는 아들딸들이 조룡조룡 달리었다. 나이도 이젠 스무살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부모들은 세상

로 먹지 못하였다. 제 한몸의 기갈은 참을수 있었으나 빼만 앙상한 어린것들의 정상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안해는 차마곤을 바싹 조이고 밖에 나가 온종일 헤매었다. 산과 들에는 사람들이 죽 깔려있어 그렇게 많던 산나물과 들나물도 바구니에 채우기가 힘들었다.

이무렵 박희준은 정희수가 송도에서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 어려운 때 동생되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 반가웠다. 그대 당장 정희수를 찾아 갈 작정이었다.

안해는 시집을 때 장만했던 옷가지들을 저자에 내가 자기 머리대로 말뼉을 만들어 팔아서 로자를 마련해주었다.

안해가 주는 돈을 감동의 눈물속에 받아안은 박희준은 즉시 집을 떠났다.

그러면 박희준이 만나러는 정희수는 어떻게 갑부로 되었겠는가. 이제 그 경위를 더듬어보기로 하자.

정경로와 그 아들 정희수는 병이 나았으나 집안살림살이는 여전히 퍼지지 않았다. 박희준은 정자전 정초부터 몇달째나 하루 한기도 제대

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이리저리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은 송도에 이르러 다행히도 큰 장사판을 벌이고 있는 부호의 집에 몸을 붙일수 있었다. 주인은 나라안의 곳곳에서 금을 사들여 외국과 무역을 하는 대상인이었다.

정경로는 금을 보면서 박희준의 집 금부처 생각이 간절하였다.



얼마간 지나자 주인은 신임을 받게 된 정경로부자는 전국각지로 돌아다니며 금을 사들였다. 정경로는 그 기회를 리용하여 금부스레기를 한일두일 모아 남모르게 저축해나갔다. 일심전력으로 모으고모은 금이 거의 금부처를 보살할만큼 되었을 무렵 그는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자기의 림종이 다가온것을 알게 된 그는 아들을 불러 깊이 감추어두었던 금을 내

놓으며 이것으로 전에 박희준이 저당잡혔던 금부처를 되찾아 그의 집에 돌려보낼것을 간곡히 일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조용히 세상을 하직했다. 그동안 주인은 장사일을 보아주면서 신임을 얻고 돈맛을 알게 된 정희수는 돈과 재물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되어버렸다. 그는 아버지가 박희준의 집 금부처를 찾으려고 손



끝으로 모았다가 세상을 떠나며 내놓은 그 금을 밀친으로 하여 대외무역을 시작하였다.

원래 총명한데다가 여러해 상계에서 굶어 리숙에 밝아진 정희수의 장사수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희수는 상계의 시세를 살피보던중 금장사보다 인삼장사가 영리상 낫다는것을 알게 되자 인삼무역을 선택하였다.

이무렵 조정에서도 날로 성행하는 금광, 은광의 개

인채굴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인삼무역을 통한 세금수탈을 늘일 목적으로 인삼무역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그렇지만 등록된 상인들의 공식적인 무역만은 어느 정도 장려하였다.

나라에서는 인숙(1841년)년에 무역세가 10년만에 이르도록 인삼무역을 늘였으며 계보(1843년)년에는 인삼생산자인 개성의 류수와 북방의 죽령무역도시인 의주의 부윤들로 하여금 인삼무역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였다.

정희수는 인삼을 가지고 밀무역을 하는 한편 공식적인 무역도 하였다. 또한 인삼포전을 사서 직접 삼을 길러 팔기도 하였다. 그가 이렇듯 여러가지 상행위를 하는것은 갑부가 되어보겠다는 야심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정희수는 사기협잡도 하고 판가의 벼슬아치들에게 뇌물도 고이면서 못하는것이 없더니 몇년만에는 과연 희망대로 송도의 큰 갑부가 되었다. 그는 언제 가난뱅이였더라는듯 고대광림 호화주택에서 수많은 노복들과 첩들을 거느리고 궁정대부님께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뿐이시 세상만사가 모두 눈아래 내려다보이고 도덕이니, 료리니 하는것도 쓸데없는 결치레처럼 여겨졌다.

호부자인 정희수는 벌써 주색장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술과 게임질이 아니면 두전노름으로 번번이 밤을 밝히고 낮에는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도였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의 시인, 명필인 양사언(1517-1584)은 돈녕주부 양희수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열중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모르는것이 없었다.

1546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후 그는 자기 집의 지방관으로 나가 평창군수, 강릉부사, 함흥부윤, 회양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안변부사로 있을 때 북방전란을 예견하여 큰 뜻을 파고 마초를 많이 저장하였다고 하여 동정대부의 벼슬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지릉(리성계의 중주부인 익종의릉)에 화재가 일어난 책임을 지고 황해도쪽으로 귀양갔다. 2년후에 류배지에서 풀려 돌아오리던중에 병에 걸려 죽었다.

그는 16세기 국문시가창작의 대표적시인중의 한사람이

다. 그의 대표작인 작품으로서는 시조 《산이 높다 하되...》를 들수 있다. 양사언은 회양부사로 있을 때 《금강산유람기》를 썼다.

그는 시뿐만아나 글씨도 잘 써서 리용, 김정희, 한호와 더불어 조선봉건왕조시기 4대명필로 이름이 있다. 안변부사로 있을 때 열흘씩이나 금강산에 유람하다가 절승경계에 도취되어 만폭동일구의 바위에 《봉래동학원화동경》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묘향산을 유람할 때에도 풍류록포에 이르러 그 장엄한 경치에 격동되어 《신선굴택운화동경》이라는 글을 새겼는데 이 글들은 지금까지 전해지며 힘있게 웅건한 필치로 하여 후세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문집으로 《봉래시집》(3권 1책)이 있다.

본사기자

유리도덕일화

소가 들을가봐

옛날 과거에 급제하고 지방관으로 임명받은 한 선비가 부임지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난생처음 시골길에 나선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뜨인것은 한 농부가 누렁소와 검정소에 동시에 멍에를 매워 밭을 갈고있는 모습이었다. 선비가 호기심이 동해 소리쳤다.

《여보게, 검정소와 누렁소가운데 어느놈이 힘을 더 쓰나?》

그러자 농부가 황황히 달려나와 선비의 귀에 대고 들릴가말가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술처럼 말하면 누렁소가 힘을 더 쓰나.》

《그런데 그게 무슨 못할 소리라고 이렇게 소곤거려?》

《미운림 증승이라고 해도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 좋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소가 들을가봐...》